

‘발우공양’ 분점 개설... ‘환경·건강’ 메뉴 개발 사찰음식 대중화 나선다

지난 15일로 개원 2주년을 맞은 사찰음식전문점 ‘발우공양’이 분점 개원을 통해 사찰음식 대중화에 나선다.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지현스님)은 오는 5월 2일 서울 견지동에 위치한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2층에 (가) ‘발우공양-공(空)’을 개원하는데 이어 같은 날 목동 국제선센터에도 ‘발우공양-공감’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인 것과 달리 새로 문을 여는 ‘공’과 ‘공감’ 메뉴는 보다 간소화됐다. 특히 불교문화사업단이 직영하는 ‘공’에서는 1식5찬의 뷔페를 기본으로 나물국수, 연화국수, 만행국수를 비롯해 냉면, 만두, 잔치국수, 비빔국수 등의 메뉴가 준비돼 있다. 또 오전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동안에 한해 ‘아침 챙겨주는 스님’ 코너를 운영한다. ‘우리차 살리기’ 코너 운영도 계획하고 있다. 녹차는 물론 구기자, 복분자, 오가피차

등 약용차를 판매하며, 이와 함께 침향이나 다도구 소품도 판매 예정이다. 발우공양에서 조리를 책임지고 있는 대안스님은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사찰음식을 맛볼 수 있도록 코스를 간소화하고 가격을 낮췄다”며 “제철 재료를 사용해 건강에도 좋은 음식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교문화사업단은 분점 개원에 앞서 오는 27일 오후5시부터 사찰음식 도시락 전시회도 개최한다. 동국

대 국제교류센터를 비롯해 서울에 거주하는 각 대학 외국인 강사를 초청해 사찰음식으로 만든 20여 가지의 도시락을 선보인다. 한편 지난 14일에는 서울 신정동 국제선센터에 사찰음식교육관인 ‘향적세계(香積世界)’가 개관식을 갖고 사찰음식 교육 및 보급에 나섰다. <관련 기사 5면> 향적세계는 사찰음식을 전국적으로 보급할 인재 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어현경 기자 eorald@bulgyo.com

조계종 신임 원로의원에 인환·정관·암도·근일스님

동국대 불교학술원장 인환스님과 부산 영주암 회주 정관스님, 전 교 육원장 암도스님, 제16교구본사 고

운사 조실 근일스님이 조계종 원로 의원으로 선출됐다. >관련기사 3면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종산스님)

는 지난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임기 10년의 신임 원로위원을 이같이 선출했다. 또한 원로의원 종하스님이 대종사 법계 심의를 통과했으며, ‘불교정화운동기념사업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원로의원 전원이 불교정화운동기념사업회 공동대표로 참여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인택 기자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총무부장 영담스님이 14일 남산창작센터를 방문, 뮤지컬 원호 단원들을 격려했다. >관련기사 11면 김형주 기자

부처님오신날을 준비하는 사람들 ⑦ 춘천교도소 불자수용자

봉축을 앞두고 교도소 안팎을 장엄할 등을 만들고 있다는 수용자를 만나기 위해 지난 8일 춘천 교도소로 갔다. 넓은 강당에 앉아 있는 불자 수용자들은 단출했다.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불교법회는 매주 금요일 1시에 열린다. 흥천 백락사 주지 성민스님과 포교사단 교정교화팀 등이 교정교화위원으로 활동하며 이들의 신생활동을 돕는다. 불교법회에는 약 40명이 참석한다고 한다.

교도소 밝히는 빈자의 등 <貧者>



연등을 만들고 있는 춘천교도소 불자 수용자들.

이 가운데 11명의 수용자가 불교방에서 지내고 있는데, 이들이 봉축준비의 핵심인력들이다. 불교방 수용자들은 요즘 밤마다 연을 앞을 빛느라 바쁘다. 특히 올해는 석탑 모양의 장엄등까지 만들기 로 해 설 틈이 없다. 게다가 교도소 봉축법회는 부처님오신날보다 항상 빨리 열려 여유가 많지 않다. 춘천교도소에

서는 오는 29일 오후1시에 봉축법회 예정돼 있다. 잔치를 앞두고 수용자들은 마음이 들떠 있다. 수용자 불교모임 회장을 맡고 있는 성지 거사는 “하루 일과가 끝나면 불교방 거실에 모여 연을 만들 게 일상”이라며 “바쁘지만 모두들 즐거워하고 있다”며 웃는다. 갈라진 그의 손끝이 신명한 자주 빛인 걸 보니 열심히 연을 맡았

다는 걸 알 수 있다. 교정인불자모임인 불심회 회장 원두연 교우는 “신심 있는 수용자들 덕분에 올해 봉축행사도 어법하게 치러질 것 같다”며 즐거워했다. 투박한 손길과 달리 연등빛깔은 곱디곱다. 좁고 외로운 교도소 안을 환하게 밝혀줄 연등들은 빈자일등(貧者一燈)을 떠올리게 한다. 춘천=어현경 기자

10·27 역사교육관이 軍명에 훼손?

기획/10·27 법난 ‘보상’ 긴급점검 ②

불교계 최대의 치욕적인 사건으로 기록된 10·27법난에 대해 “피해 정도가 경미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혀 비판을 받고 있는 국방부가 지난해 11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역사교육관 건립이 군의 명예를 훼손시킨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본지가 지난해 11월 열린 국방위원회 예결산소위원회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기획조정실장과 기획예산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10·27법난 예산 집행과 관련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냈음이 밝혀졌다. 특히 김광우 기획예산관은 “역사

교육관을 지어서 계속 군의 명예를 훼손하고 군을 폄하하는 이런 정도로 국민들에게 인식시켜 주는 교육관이면 더욱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려한다”고 발언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보상보다는 가해자의 명예를 우선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더구나 국방부 고위관계자들은 국무총리 산하 10·27법난 명예회복 피해자심의위원회의 활동을 폄하하는 발언까지 한 사실이 확인됐다. ‘10·27법난 피해보상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주하 기획조정실장은 “‘자기들’이 의결하기를 1500억 원을 요구했다”고 발언했다.

1500억 원은 10·27법난 역사교육관 건립 기금을 가리킨 것이며, ‘자기들’이란 10·27법난 명예회복피해자심의위원회를 지칭한 것이다. 김광우 기획예산관도 “종교계 인사들이 위원 의 다수를 차지하다 보니 1500억 원이라는 돈으로 의결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0·27위원회의 (역사교육관 예산) 의결 사항이 과연 행정부가 구속력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의문시 된다”는 발언까지 했다. 기획조정실장과 기획예산관의 이같은 발언은 국무총리실 산하 10·27위원회에 국방부 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경찰청 차장, 국가보훈처 차장 등 ‘정부위원’이 참여하고 있음을 격화한 것으로 비판받기에 충분하다.

역사교육관 예산 규모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우주하 실장은 “(역사교육관 예산) 규모에 있어서도 1500억 원이 적정하나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다”면서 예산 편성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 특히 우주하 실장은 “10·27사안이 1980년도 비상계엄 당시에 군이 어쩔 수 없이 한 건데 우리(국방부)가 문제부에서 중무적인 차원에서 판단한 것을 집행한 것”이라며 국방부의 책임을 회피했다. 한편 불교계에서는 “10·27법난으로 불교계의 위상을 추락시킨 당국이 반성은 고사하고, 다시 한 번 불교계를 농락한 것”이라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이성수 기자 soolee@bulgyo.com

국방부, 10·27 역사교육관 예산 ‘미흡한 해명’ 본지에 ‘입장’ 보내... ‘피해 정도 경미’는 답변 없어

“국방부, ‘10·27법난은 피해정도 경미한 사안’”이란 본지 보도와 관련 국방부 법무관리실이 ‘국방부 입장’을 보내왔다. 국방부는 지난 14일 본지에 보내온 이 입장에서 10·27법난 역사교육관 예산 축소와 관련 법난명예회복지원단의 요구에 근거해 편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작년 법난명예회복지원단이 2011년 역사교육관 예산으로 213억 원을 요구했으나, 금년 내에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102억 원을 예산에 반영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2012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법난명예회복지원단 측의 사업계획이 구체화되면 집행

가능한 합리적 수준의 예산안을 국회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는 10·27법난명예회복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역사교육관의 전체 예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2011년 국방부 예산요구안’에 따르면 역사교육관 예산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개년간 단 한 푼도 배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본지 2712호 1면 참조> 한편 2011년도 예산안 요구서에서 국방부가 “10·27법난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수준”이라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아 무성의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성수 기자 soolee@bulgyo.com

5대 결사 중심도량 5개 직영사찰 지정

조계종이 자성과 쇄신을 위한 결사를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5개 직영사찰이 5대 결사 중심도량으로 거듭난다. 조계종은 지난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1/4분기 직영사찰관리위원회를 열고, 5개 직영사찰이 수행과 문화, 생명, 나눔, 평화 등 5대 결사를 하나씩 선정해, 중점적으로 실천하는 결사 중심도량이 되자고 결의했다. 서울 국제선센터가 수행결사중심도량, 경산 선본사가 문화결사중심도량, 강화 보문사가 생명결사중심도량, 서울 조계사가 나눔결사중심도량, 서울 봉은사가 평화결사중심도량으로서 5대 결사를 앞장서 실천하게 된다. 박인택 기자

대한불교조계종과 함께하는 재향군인회 상조회

불자님들,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불자님의 상조피해를 막고자 종단에서 직접 검증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재향군인회 상조회에 지금 가입하십시오

재향군인회 100% 출자상조

조계종이 보증하는 유일한 번호 | 상담 시 다니시는 사찰 명을 말씀해주세요

080-888-5000

무료상담

경제적인 상조

장례비용이 시중보다 저렴합니다

편리한 상조

복잡한 장례절차를 모두 해결해드립니다

한결같은 상조

물가가 올라도 추가 부담 없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재향군인회 상조회

중요정보 고사사항 1.종도사(종도사) 및 환급기준 가. 표준판 제15호 제 규정의 의한 나. 환급금액은 신청일부 제 3항의 의한 다. 만기 3개월 후 해지시 납입금액의 100% 환급 2.서비스 분쟁 시 분쟁의 해결기준 공정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의함 3.주요제품물품 및 서비스 내용 가. 수의 원단 제포에 소요되는 원사의 종류 및 원산지 * 원사의 종류: 대마(100% 중국산) * 원단의 제조 방법 및 제조사 및 수제(국내/해외) 나. 관의 재질 * 무게 및 원산지 * 매장시: 오물(내/중/국산) 3~4.5cm * 화장시: 오물(내/중/국산) 1.8~3cm 다. 차량의 종류 및 무료로 제공되는 차량거리 * 차량의 종류 - 운구(무장) 린컨(2006년 이상) - 장의버스(현대, 기아(2006년 이상) * 추가비용: 상설별 기본 무료제공 이외 거리 추가시 10km당 운구버스16,000원 리무진 18,000원 * 차량 및 비용은 제공자 및 행사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라. 도유미 추가시: 1인당 8만원(10시간 제공, 2009년 기준) 4.재향군인회 상조회 현황(2010년 3월 10일 기준) 가. 상조관련자산 19,965,615천원 총 고교 회금의무액 15,400,603천원(공인회계사의 회계검토를 받았음-회림회계법인) 5.고교회금의 관리방법 고교회금의 35.8%는 별도의 계정으로 농업 외 4개의 은행에 예치하고 있으며, 그 외 자산도 감독기관의 관리 감독에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